

슬픔 속 견져 올린 언어, 자연과 사람을 어루만지다

김기완 시인 첫 시집 '슬픔을 헤아리며' 출간

가족과 유년의 기억, 자연과 인간의 공존, 슬픔의 승화를 고스란히 담은 시집이 발간돼 눈길을 끈다. 김기완(사진) 시인이 첫 시집 '슬픔을 헤아리며'(시와사람)를 펴냈다. 시인의 내면과 시적 지향을 가늠할 수 있는 첫 시집인 만큼 이번 작품집은 가족과 유년의 기억, 자연과의 교감, 사회적 약자에 대한 파스한 시선을 담으며 그만의 시 세계를 정립해 나간다.



가족·유년, 내면기억 투영한 시편부터 생태적 상상력 담은 사유의 여정까지

이 책에는 유년 시절과 부모의 사랑, 희생을 되새기는 사유가 중심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시인은 삶의 지난한 궤적을 따라가며, 어린 시절의 순수했던 감정과 부모로부터 받은 무조건적인 사랑의 기억을 통해 존재의 뿌리를 더듬는다. 그 과정에서 마주한 슬픔은 단지 아픔에 머물지 않고, 이를 견디고 이겨내는 태도와 의지로 승화된다.

아울러 시인은 자연을 단순한 배경이 아닌 사색의 대상으로 삼는다. 오염되지 않은 자연의 순수성과 완전함은 시인에게 하나의 이상적 존재로 비춰진다.

자연의 숨결과 리듬을 따라가는 그의 시편들은 인간 존재의 본질을 되묻고, 치유와 위안의 통로로 기능한다. 자연에 대한 이러한 시인의 태도는 단지 감성적 서정에 머물지 않고, 동양적 자연관에 기반한 철학적 사유로도 이어진다.

시집의 또 다른 축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인의 관심이다.

시인은 소외된 기층민의 삶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고단한 일상을 조용히 응시하며 따뜻한 시선으로 어루만진다. 그의 시는 목소리를 잃은 이들의 삶을 시어로 되살리는 동시에,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늘을 드러내는 윤리적 물음을 품고 있다.



시집 전체에는 '슬픔'이라는 감정이 깊숙이 배어 있다. 하지만 시인은 슬픔을 부정하거나 도피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슬픔을 삶의 본질로 받아들이며,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와 성찰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한다. 슬픔을 정서적 동력으로 삼아 인간적 인성숙에 이르는 이 시집의 여정은 독자들에게 묵직한 울림을 안겨준다.

또 이 시집은 생태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한다. 가문비나무가 죽어 다시 '헬로'로 태어나는 과정을 통해 자연의 재생 가능성을 노래하고, 목련이 지고 피는 반복을 통해 삶과 죽음의 순환을 긍정한다. 이러한 시적 상상화는 인간 중심적 사고에 대한 성찰과 함께, 자연을 하나의 주체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을 담고 있다.

시인의 시는 독자들에게 쉽게 읽히는 친화력을 지닌다. 일상의 언어로 쓰인 그의 시는 존재의 근원과 감정을 투명하게 직조해내며 우리 시대 시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김기완 시인은 나주 출신으로, 전남대학교를 졸업하고 광주 지역 중·고등학교에서 오랜 시간 교직에 몸담았다. 지난 2월 정년퇴임 후, 같은 해 '문예사조' 신인상으로 등단하며 시인으로 새 출발을 알렸다. /최명진 기자

새로 나온 책



▲시꽃 물들다=김영자 저자
김영자 시인의 시집 '시꽃 물들다'가 발간됐다. 총 4부로 구성된 이번 시집은 이미지를 중시하는 총 85편이 수록돼 있다. 시적 화자는 계절과 일상에서 나타나는 정서를 그림처럼 그려내고 있다. 사물의 사색과 의미를 새롭게 해석해 신선미를 품은 그의 시는 새로운 해석과 착상으로 감동의 전율을 선사한다. 박덕은 문학평론가는 "이러한 시의 특질을 고루 구비한 그의 글은 시의 맛이 살아 있어 읽어가는데 재미 또한 솔솔하다"며 "사물을 바라보는 각도가 기시감 이 들지 않아, 멋스러워 보이며 다채로운 정서를 만나게 해준다"고 평했다. /시와사람사·1만5천원



▲집시랑 물 떨어지듯=설채원 저자
설채원 시인의 첫 번째 시조집 '집시랑 물 떨어지듯'이 발간됐다. 총 5부로 구성된 이 시조집은 사계절 그리고 자연과 관련된 소재로 가득하다. 그의 시는 지극히 개인적인 시적 세계관에서 시작해 날카로운 풍자적 시정신을 구현하기도 한다. 역사성이나 의식있는 성찰, 우주적 상상력으로 뿜어나가는 시의식을 보여주기도 하며 대체로 보편적인 자아와 세계의 동일성, 즉 주객일체의 의식 지향을 보여주고 있다. 윤삼현 시인은 "격동의 한 시대를 관통해온 기억과 체험이 두루 용해돼 풍부한 정서적 울림을 낳고 있다"고 평했다. /서석·1만2천원



▲몸, 내 안의 우주=남궁인 저자
응급의학과 전문의이자 작가로, 생생한 의료 현장의 이야기와 인간적 통찰을 담은 글로 독자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킨 남궁인이 5년 만에 신작으로 돌아왔다. 저자는 응급실에 온 환자들의 진단 및 치료 과정을 따라가면서 동시에 우리 장기에 대한 본격적인 스토리텔링을 시작한다. 저자는 북부 한복판에 다양한 장기들이 자리한 소화기부터 순환의 원동력인 심장을 거쳐 인간의 고등한 사고능력을 관장하는 중추신경계까지, 몸의 구조와 기능, 작동 원리, 관련 질환 등을 풀어가며 우리 몸 구석구석을 면밀히 살핀다. /문학동네·2만3천원



▲오르락내리락=이승범 글·그림
아기의 하루는 언뜻 보면 단순하고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발견과 놀이, 그리고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경험이 담겨 있다. 햇살이 내려오고 새싹이 올라오는 자연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것부터 엄마의 손길을 느끼고, 비눗방울을 불고, 포크에 말린 국수를 먹고, 시소를 타는 순간까지, 아기가 겪는 소소한 일상 속 움직임들은 온몸으로 세상을 느끼고 자라나는 소중한 시간이다. 내려오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내려오는 반복 구조를 따라 책장을 넘기다 보면 '오르락내리락'이라는 움직임의 개념을 익히게 되고 리듬을 타며 마치 놀이하듯 책 읽는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 /길벗어린이·1만2천원

40년 의료 경험 집약한 건강 비결서

조생구 목포 한사랑병원장 '건강칼럼1' 출간



조생구 목포 한사랑병원장이 40여년간의 의료 경험과 건강 인사이트를 집약한 '건강칼럼1'(예사랑)을 출간했다.

이번 책은 저자가 방송과 신문에 기고해 온 약 1천300여건의 건강 칼럼 중 530여건을 정리해 엮은 것으로, 이 중 196건을 선별해 총 600여 페이지, 10장 분량으로 담았다.

조 병원장은 "현대인은 누구나 무병장수를 꿈꾸지만, 특별한 병이 없어도 건강 나이가 많으면 오래 살기 어렵다"며 "건강 나이를 짧게 유지하려면 생활습관을 철저히 관리하고, 가족력과 환경요인 중 교정 가능한 위험 요소부터 제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생활습관 개선, 규칙적인 운동, 정기 검진 등 3박자를 갖추면 누구나 10년은 더 젊게 살 수 있다"고 조언했다.

책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첫걸음 ▲소화기 질환과 식습관 ▲심혈관 질환 예방 ▲호흡기 건강 ▲호르몬 균형 ▲신장 건강 ▲암 예방 ▲감염병 예방 ▲뇌 질환 관리 ▲중독 문제 등 각종 질병 예방과 건강 유지에 관한 실용적인 정보로 구성돼 있다.

조 원장은 1987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목포시의료원에서 근무한 뒤 1990년 조소아과를 개원했다. 이후 1999년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를 포괄하는 목포 한사랑병원을 설립해 지금까지 진료를 이어오고 있다.

개원 초기 17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진료하며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쌓았다.

진료와 병원 운영 외에도 그는 방송 출연과 신문 기고 등



다양한 활동을 병행해 왔다. 목포MBC 생방송 출연을 시작으로 광주매일신문 등 다수 언론에 건강 칼럼을 기고했으며, 현재는 병원 진료와 더불어 건강 정보 확산에 힘쓰고 있다.

조생구 병원장은 "이 책이 잘못된 습관과 생활 방식을 돌아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정보를 정리해 후속 권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목포=정혜선 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국 944-0993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목포지사 061)278-0740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시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